

‘윤석열 징계’ 내일 2차 심의…秋-尹 대치 금주 최대 분수령

윤 총장 6가지 혐의 본격 심의
8명 증인신문 치열한 공방 예고
현재 징계위 절차 중단 여부 변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치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감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징계를 심의한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 그리고 윤 총장의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됐다. 2차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이래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번 회의는 사태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0일 첫 심의를 열었으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에 누구인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기피 신청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면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이후에도 증인을 직접 심문하지 못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

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져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문제 제기에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감사징계위원회의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앞선 첫 회의에서 하지 못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된 상태다. 특히 채택된 증인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가운데 류혁 법무부 검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해온 이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감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져분을 신청한 상태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이튿날인 지난 11일 가져분 신청을 받아들



“무제한 토론 수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며 현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현재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져분을 결

정하면, 현재가 감사징계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위는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당분간 계속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추 장관은 수세

에 물리는 형국이 된다.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과 가져분 신청의 주심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 장기화에 ‘보험들기’ 성행

‘민주주의 4.0’ ‘더미래’ ‘민평련’
이중 호적 유지 의원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박스권 양강 구도 속에 당내 의원들 사이에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통상 대선을 1년반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는 미래 권력을 구심점 삼아 배타적 세력 재편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팽팽한 양강 구도가 이어져 자 무게 중심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확실한 ‘친문 후보’가 없는 상황도 이 같은 현상에 한 몫 한다.

대표적으로 당내 의원 모임에서 ‘이중 호적’을 유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친문계 집결로 시작부터 주목받은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경우도 현역 의원 56명 중 3분의 1 가량이 19명은 당내 다른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회원이다.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미래나 김근태계가 주축이 된 민평련은 친노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 친문계와는 노선을 달리한다.

민주주의 4.0에는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김영배 정무실장, 강선우 대변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박광온 사무총장도 애초 창립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했지만, 당직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오영훈 비서실장은 민평련과

더미래 멤버다. 이 지사 측에서는 김영진 이규민 의원이 민평련 회원이고, 이동주 의원은 민평련과 더미래에서 동시에 활동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13일 “이 대표와 친밀한 의원 중 몇 명은 정세균 총리와도 가깝게 지내고, 전해철 의원의 조자 지방선거 때 부딪혔던 이 지사와 관계를 조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여기저기 보험을 들려는 이중 멤버십이 흔해졌다”고 촌평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는 무의식적 불안감에 무리를 짓고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은 생존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4선 우상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장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여권에서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우 의원이 처음으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고 모든 것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우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문

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느냐, 야당의 흡입과기와 발목잡기로 혼란스러운 국정 후반기를 보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을 지역구로 둔 4선 국회

의원으로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으로 6월 민주항쟁을 이끈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 대표주자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주거안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우 의원은 “지금 서울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전일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시장이 공백 상태이고 코로나19는 확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여러 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송갑석, 1호 공약 광천터미널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완공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13일 “2년 전 1호 공약 국비사업이었던 광천종합터미널 지하보도 엘리베이터가 11일 완공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광천터미널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사업은 27년간 대물림된 광주의 대표적 숙원 사업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비사업”이라며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성과여서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다.

1992년 조성된 광천종합버스터미널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터미널이지만, 지하보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국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후 2018년 9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 올해 2월 착공했다.

특히 3미터 높이의 계단은 경사가 심해 보행자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송갑석 의원은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정부에 사업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찾아가는 민원실’을 비롯해 민원현장을

소병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온택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순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를 주제로 온택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혜영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 센터장은, 국가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원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지원, 정원(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원산업 플랫폼으로서의 국가 정원 역할 증대, 유관 부처간 협업 필요성 등을 강



조했다.

또 박은영 중부대 정원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정원의 문화적·산업적 확장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도출해보고,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위상을 강화시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